

한국학, 세계와 소통하고 공감하다 전주 비엔날레 성료

세계 20개국 100여명 전문 석학들 방문... 언어·문화 등 학자의 시각에서 진단

올해 처음 개최된 2016세계한국학 전주비엔날레가 한국학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학문과 문화 교류의 장을 형성했다는 평가와 함께 지난 5일 막을 내렸다.

이번 비엔날레는 지난 1일 오후 6시 리셉션을 시작으로 2일~3일 학술대회와 4일~5일 문화 체험 등으로 진행됐으며, 5일 오전 문화체험 및 템플스테이 등을 끝으로 대회가 매듭지어졌다.

'세계 한국학의 소통과 확산'이라는 주제로 열린 비엔날레는 세계 20개국 100여 명의 한국학 전문 석학들이 방문해 '언어·문화', '역사·철학', '정치·경제', '글로벌 시대의 한국학' 등 4개 분과로 세분화해 한국학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세계화 등을 다양한 학자의 시각에서 진단했다.

또한 학술대회를 마친 국내의 학자들은 지난 4~5일 이틀간 사상전례와 함흥주례, 향사례, 전통 공예품 제작과 악사

체합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학의 학술적 성과 공유뿐 아니라 한국의 맛과 멋을 세계 학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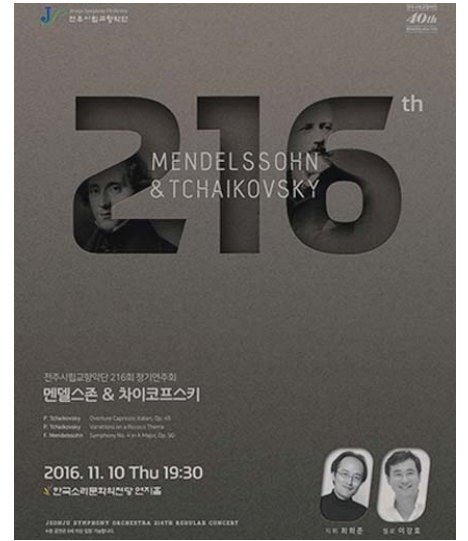
비엔날레는 한국학 연구의 세계화를 위해 전주가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일회적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한국학의 소통과 확산의 기반을 다지는 한국학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간이 됐다고 세계 학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종민 집행위원장은 "올해를 시작으로 2년마다 전주에서 개최되는 세계한국학 전주비엔날레는 국내외 한국학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한국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특히 한류를 중심으로 전주가 한국학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성공적인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올해 처음 개최된 2016세계한국학 전주비엔날레가 한국학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학문과 문화 교류의 장을 형성했다는 평가와 함께 지난 5일 막을 내렸다. 지난 1일 오후 6시 리셉션을 시작으로 2일~3일 학술대회와 4일~5일 문화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가을이 익어가는 소리 담은

전주시립교향악단의 첼로 음악회

바이올로 첼로의 계절이 도래했다. 중저음의 첼로 현과 활 끝에선 가을 익어가는 소리가 난다.

전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0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216회 정기연주회 <멘델스존&차이코프스키>를 갖는다.

이날 무대에는 첼리스트 이강호가 협연자로 나선다. '청중을 사로잡는 정열적이면서 완숙한 연주' (미국 Courier-Post), '완벽한 테크닉, 서정적이면서 우아한 연주' (The Korean Herald) 등의 격찬을 받은 바 있는 이강호는 세계무대에서 독주와 실내악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며 독자적인 연주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첼리스트이다.

연주회에서는 차이코프스키의 '이탈리아 기상곡 작품45'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멘델스존의 '교향곡 4번 가장조 작품90'을 선사한다.

차이코프스키는 정식 첼로 협주곡은 남기지 않았지만 첼로 솔로와 오케스트라의 협연을 위한 작품은 소수 남겼는데, 그 대표작이 로코코 변주곡이다. 음악에서 '로코코'라 하면 바로크 시대에서 고전과 시대로 이행하던 시기에 유행했던 음악양식으로 우아함, 섬세함, 경쾌함이 특징이다.

관람료는 S석(1층)10,000원/A석(2층)7,000원. 공연문의는 063-281-2748. /정해은 기자

순창군, 생활문화예술 동호인 큰잔치 벌여

관람객과 공연팀 등 참가

순창군 생활문화예술 동호인들의 한마당 잔치인 생활문화예술 한마당 잔치가 지난 4일 향토화관에서 열려 관람객과 공연팀이 함께 어울어지는 한마당잔치가 됐다.

2016년 생활문화 예술이 꽃을 피우는 날'이라는 주제로 (사)순창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황숙주 군수, 김종섭 군의회의장 및 군의원과 주민 250여명이 참석해 대 성황을 이뤘다.

우리소리 농악단의 신명나는 농악으로 문을 연 이번 공연은 장수 우리춤 '한량무' 공연, 팔덕 신바람, 웃고사는 지북리 노래교실 팀의 공연, 하모니카 앙상블 색소폰 앙상블, 구립 스포츠택스팀 등 아바추어 예술인들의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맘껏 뽐내는 시간이 됐다. 또 페어리 엔젤 방송댄스팀의 공연 등계 신바람 난

타입의 공연도 관람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다. 마지막 공연은 색소폰 아티스트 신유식씨의 초청공연으로 마무리된 공연장을 찾은 군민들의 뜨거운 박수를 이끌어냈다.

황숙주 군수는 축사를 통해 "오늘 생활문화예술 동호인들의 끼와 실력은 맘껏 뽐내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들이 좀더 폭넓은 예술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은 참석한 관람객들이 시종일관 자리를 뜨지 않고 참가팀들의 공연을 즐겨 열빈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순창군 여성사회 교육 수강생들이 준비한 캘리그래피, 서예, 도자기 공예, 사군자, POP생활악제 작품들이 전시돼 행사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었다. /순창=이왕원 기자



동서식품(주)은 지난 3일 전주동초등학교에서 사회공헌 활동 '제9회 맥심 사랑의 향기'를 진행했다. 새악기를 전달하고 악기 연주법을 지도하고 함께 협연을 펼쳤다.

동서식품 '나눔이 필요한 곳에 문화의 향기를'

전주 동초등학교 소리하나 오케스트라단에 새 악기 전달식 가져

동서식품(주)은 지난 3일 전주동초등학교에서 사회공헌 활동 '제9회 맥심 사랑의 향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맥심 사랑의 향기'는 나눔이 필요한 곳에 문화자산을 후원해 사회 전반에 문화예술의 향기를 나누자는 취지로 2009년 부산 소년의 집 관현악단 후원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청주 등에서 매년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선 동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소리하나 오케스트라단과 동서식품 관계자 교직원 및 재학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펫, 트럼본 등 연주에 필요한 새 악기를 전달하는 악기전달식이 진행됐다.

동서식품은 악기 외에도 낡은 연습실을 보수하고 악기 보관함을 교체하는 등 학

생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어 감사음악회에서는 연주자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와 군산시립교향악단 6명이 함께 참여해 재능기부 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지아와 군산시립교향악단 연주자들은 학생들에게 악기 연주법을 지도하고 함께 협연을 펼쳤다.

동초등학교는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혜택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정서적 지원과 협동심 함양을 위해 오케스트라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김서연(동초 6학년) 학생은 "깨끗하고 환해진 연습실에서 새 악기로 연습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 앞으로 새로운 악기로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연주자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해은 기자

'최순실 게이트'에 문화예술인들 시국선언 확산

'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두번째 사과에도 문화예술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가 모두 블랙리스트 예술가다' 예술행동위원회 회원 100여명은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문화예술인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해명과 진상규명을 요구한 문화연대·한국작가회의·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이 주축이 됐다.

이들은 28개 문화 예술 단체가 참여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의 많

은 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벌어졌다는 사실과 문화융성 운운했던 박근혜 정부 문화정책이란 것이 사실상 최순실·차은택의 사익을 위해 철저하게 기획됐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최순실, 차은택,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의 구속 수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국선언을 마친 뒤 문화행동을 위해 광화문광장에 텐트를 치는 것을 놓고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뉴스이

고창서 서예인들 한자리에 모인다

'고창 한묵회'의 전시회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고창문화의전당과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인사동 백악미술관에서 개최된다.

4일 고창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열린 '제3회 고창 한묵회 전시회 기념식'에는 박우정 군수 최인규 군의장 정병식 도의원 고창문화원 송영태 원장을 비롯한 100여명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고창 한묵회'는 우리 민족고유의 문화예술로 심신과 인격수양 분야에서 최고의 예술로 손꼽히는 서예에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진하는 고창출신 서예, 서화작가들의 모임이며 한국서가협회 고문 박진태 회장을 주축으로 석곡 김재엽 등 약 20여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다.

이번 전시회는 제외작가와 고창 지역 작가의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독립전 형태로 이뤄지며 전시 후 작품 10여점을 고창군에 기증할 계획이며 후진양성과 군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데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전시된 작품들은 방장산 아래 자리 잡은 평온한 고창지역의 자연경관이 모든 예술작품에서 그대로 스며있고, 작품마다 높은 경지의 예술성이 드러나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11월 7일>



▷쥐띠

46년생: 처음에는 이득이 있으나 후반에는 다시 운이 막힌다.
60년생: 구설수 시비수가 따르니 타인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
72년생: 금전운이 좋지 못하니 무리한 추진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84년생: 어려움이 발생해도 뒷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된다.



▷소띠

49년생: 금전적으로 이득이 따르는 운이니 적극 움직여라.
61년생: 분주하기는 하나 분주한 만큼 이득을 얻기는 어려운 운.
73년생: 혼자서는 불가능하나 힘을 합치면 가능한 일이다.
85년생: 뜻밖의 귀인이 도움을 주는 운.



▷호랑이띠

50년생: 외부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이나 앞으로 나이가 지 멀리.
62년생: 가뭄에 시달리다 단비를 만난 격. 예기치 않은 상황 발전.
74년생: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는 가급적 원행을 삼가라.
86년생: 욕심을 부리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운.



▷토끼띠

51년생: 힘든 상황에 놓였던 사람은 한숨 돌릴 수 있겠다.
63년생: 도처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된다.
75년생: 모질고 귀를 함몰해 하는 소리가 도움이 되는 운.
87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이럴 때는 뒤로 물러서라.



▷용띠

52년생: 동기간의 도움을 받으면 생각보다 쉽게 이룰 수 있다.
64년생: 남자는 여성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76년생: 들을 얻으면 하나를 보내야 하는 운이니 짐작은 금물.
88년생: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면 화가 발생한다.



▷말띠

53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해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65년생: 예상보다 상황이 좋게 돌아갈 수 있으니 실망하지 마라.
77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몸의 작은 신호에도 주의.
89년생: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평안하게 지나가는 운이다.



▷말띠

54년생: 주변에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생기는 운이다.
66년생: 지나치게 나서면 구설수가 따르게 된다.
78년생: 주변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운이다.
90년생: 억의 없이 행동한 일에 관련한 상황이 발생하는 운이다.



▷양띠

55년생: 내부에서는 결단이 필요한 때다. 겉으로 유지만 하고 있다.
67년생: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는 운.
79년생: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 있는 운이니 주의하라.
91년생: 변동하면 흥분하고 즐거워나 망설이지 마라.



▷염소띠

55년생: 사고수를 조심해야 하는 때. 원행을 삼가라.
67년생: 금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주의하라.
80년생: 구설수, 시비수가 따르니 언행을 삼가라.
92년생: 지나친 과단성은 주위 사람들의 문제를 야기하라.



▷말띠

57년생: 봄에 수확을 하려는 격이니 때를 기다려라.
69년생: 지금 현재는 답답하고 힘들다. 차츰 운이 좋아질 것이다.
81년생: 변제 변화에 무리하지 말고 잘 적응해 나가라.
93년생: 천수신조가 있으니 매사에 순리대로 진행하라.



▷개띠

48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다. 상황을 잘 살펴서 경각심일 것.
60년생: 여자와 상대하면 반목이 많이 일어 잘 풀리지 않으니 주의.
72년생: 시비가 따르니 불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뒤로 물러서라.
84년생: 좋지 않은 일이 몰려 다가오는 운이다.



▷돼지띠

47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니 주의하라.
59년생: 움직이면 이득이 있고 머물면 손해가 따른다.
71년생: 성공하게 행동하되가는 일이 돌아질 수 있으니 조심.
83년생: 매사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후에 움직여라.